# 실패 대신 단절이 성공의 어머니

## (시편 147:7~20)

10.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2.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3.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14.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5.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실패 대신 단절이 성공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실패 대신 단절이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닌 단절이야말로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에 2,000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한 젊은 기자가 에디슨에게 "계속해서 실패할 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실패라뇨?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2,001번째에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000가지가 넘는 특허를 받아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에디슨입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전구 하나가 2,000번의 실패 같은 단계를 걸쳐 나왔다면 나머지 1,000가지의 특허를 위해서는 얼마나 실패했던 것일까요? 특허 하나 당 100번의 실패를 했다면 에디슨은 총 100,000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는 동안에 에디슨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단절이었습니다. 발명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에디슨의 전기를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에디슨은 12살 때에 열차에서 신문과 과자 등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물차 안에 실험실을 꾸렸다가 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장에게 얻어맞아서 귀에 청각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고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절이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전구를 만들어 낸 성공의 어머니는 2,000번의 실패가 아닌 2,000번의

실패를 하게 만든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천체물리학자 스트븐 호킹(Stephen Hawking, 1942.1.8-2018.3.14)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확고한 무신론자였던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의 성공의 비결은 에디슨과 닮았습니다. 멀쩡한 몸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에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시간 밖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1살에 루게릭병이 발병하면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를 소개하는 글을 보니 그는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이겨내고 76세까지 살면서 학문에 열정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세상과 단절하고 천체물리학에만 전념한 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보자면 세상과의 단절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모순되게 들리는 말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이 단절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선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선민들은 이방 땅에서의 포로생활을 겪은 끝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재건을 시작으로 하여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들에게는 선민에 대한 뚜렷한 정체의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오늘 시에서는 이 정체의식이 드러납니다.
이 시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짝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짝이 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관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수걸이에 비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수걸이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삶이 바로 선민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한 실패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성공의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짝이 된 사람에게 성공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선민은 하나님과 짝된 관계를 원활히 맺어가는 것만이 성공의 과제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과 짝된 자의 겸손함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 짝된 사람이 겸손해지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과 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려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짝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과제로 삼아 일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짝되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짝된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요,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어머니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 능력이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민은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합니다. 사업가는 눈을 뜨면 돈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야겠다며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관계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의 나의 과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고,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32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8~9절을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일조차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마음을 두시든 않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것은 성경이 증거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짝으로 삼지 않은 이방사람들이 자신의 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선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선민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이 과제가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맹자가 "천강대임(天降大任)"이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천강대임이란 하늘에서 내리신 커다란 임무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맹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사명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경각심을 높이고 강인함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은 대임을 수행할 사람에게 인생의 역경을 통하여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짝이 되어야 하는 선민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역경을 통해 강해지고 큰 인물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많이 나타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놓인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짝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삶을 위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눈앞에 놓인 과제들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손발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성공은 보장됩니다. 역경을 겪으며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대해 죽어 하나님을 나타나시게 하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손과 발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나타납니다. 내 소원이 죽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11절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선민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뜯어고쳐야만 합니다. 적어도 복음 안에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일 수 있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경외를 소홀히 하는 일일 뿐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경외함’이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이 없으면 무섭고 두렵고 우울해서 살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돈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무섭고 두렵고 우울해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외의 마음은 오직 그대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럽기 그지없는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상 것을 탐해왔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기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자꾸만 더러워집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하는 자리에 자꾸만 다른 이름을 올리니 더러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민의 고뇌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바라며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인은 예루살렘과 시온에 집중합니다.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15절을 보면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서 이 시편을 두 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과 기쁨은 얻을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기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선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생활화하는 방법이 13~15절의 모습입니다.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의 단절로부터 성전 생활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문을 걸어 잠갔는데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는 경작지가 충분하지도 않았으며 생필품을 자급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모습들은 구약적 언어로 묘사된 성공의 모습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조건이 구비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성공이 문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성전 생활화함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짝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짝이 되었을 때에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처지에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세상은 내 짝되신 하나님께서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선민입니다.

'문빗장'은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단절된 예루살렘성 안에서 가장 완전한 성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걸어 잠근 예루살렘성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하나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문제 만족의 문제를 예루살렘성 안에서 성전 하나로 해결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영역을 달리며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 삶도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세상과 단절을 이루어야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완결 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여깁니다. 그렇기에 나가서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짝이 되기 위해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삼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 건강 명예 권력 자녀의 형통을 비롯한 가치들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부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흥이나 예산 또는 아름다운 예배당과 담을 쌓아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형통이라는 가치와 담을 쌓고 단절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대하기 전에 사업장에 가기 전에 직장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희한한 비유가 나옵니다. 16~17절을 보면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눈이나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내 삶

의 영역이 아닌 아주 먼 곳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과 만족의 문제를 종결짓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영역을 지배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 영역에까지도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의 삶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나가야합니다. 회사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월급 승진 사장님과의 관계 등의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선 마음의 문빗장을 걸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직장이라는 곳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대해서 죽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자녀들의 형통이나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가정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를 종결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짝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훌륭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천강대임에서처럼 역경을 통하여 강인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짝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애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실 것입니다.
선민들은 이것이 선민의 삶인지 모르고 오히려 세상에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요와 다산을 같이 좋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민들은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초토화되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시인은 이제는 이러한 선민 됨을 잃지 말라는 의도에서 오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의 짝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 생활화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제2의 창조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